농신보, 태풍피해 지원 현지 상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해남권역센터(지점장 이철건)는 지난 28일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재해 특례보증지원을 위해 완도 청해진농협에서 현지상담을 펼쳤다. 〈사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은 행정기관에서 재해농어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1억원까지 위탁보증을 지원되고 보증료도 감면받게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전남신보 5년새 1,120억원신용 보증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옥)이 31일자로 창립 5주년을 맞았다.

재단은 전남도와 정부가 출연한 150억원으로 출발, 현재 405억원의 기본재산을 확충했고 설립 이후 4천6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1천120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2004년 목포출장소, 2005년 화순출장소를 개소해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올 4월에는 순천시로 본점을 이전했다.

김윤옥 이사장은 "올 1월부터 전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업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리업무를 수행해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앞으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신용보증제도를 정립, 재단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개인회생 등 상반기 금융 민원 감소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의 상반기 민원처리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상반기중 호남과 제주 등 관내 민원처리 건수는 총 6천241건으로 전년 동기 7천16건에 비해 11.4%가 감소했다.

광주지원은 민원이 감소한 주된 이유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제도 활성화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민원 상당부분이 처리되고 그동안 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던 중복·반복민원도 221건에서 44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 등을 들고있다.

중복민원은 금감원 외에 청와대나 고충처리위 등에도 함께 제기된 경우고 반복민원은 금감위가 처리했으나 불복해 다시 제기한 민원을 말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최근 5년 광주·전남 고용시장 살펴보니

취업현장 젊은층 사라진다

〈30세 미만〉

올 2분기 취업자 21만명 … 50세이상 56만명의 절반도 안돼

노동 고령화 가속 … 전남은 사상 첫 30세 미만 10만명 붕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고용시장에서 5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의 주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올들어 30세 미만 취업자가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반면 50세 이상은 전체 고용시장의 절반수준에 달하는 등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30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2·4분기 광주·전남 취업자 155만1천명 가운데 50세 이상 취업자는 55만7천명(36%)으로 30세 미만 21만3천명(14%)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5년 전인 2001년 2·4분기의 50세 이상 취업자 52만7천명보다 3만명(6%)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8만2천명(16%)이 줄어든 30세 미만과 대조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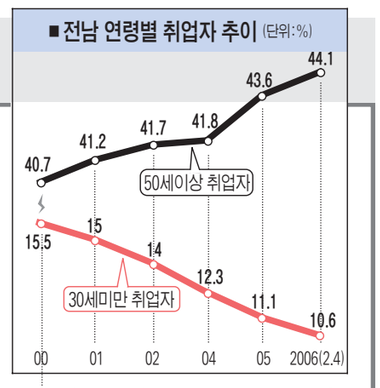
이같은 현상은 전남을 중심으로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청년실업 증가 등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는 2·4분기 50세 이상 취업자가 14만9천명으로 5년 전 11만6천명보다 3만3천명(28%) 증가했다. 반면 30세 미만은 11만4천명으로 5년 전 14만6천명보다 3만2천명(22%)이나 줄었다.

전남은 2·4분기 5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8천명으로 5년 전 41만1천명보다 3천명(0.7%) 감소했다. 하지만 노년층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2001년 41%보다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인구감소로 인해 전체 취업자 숫자도 동반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은 올들어 30세 미만 취업자가 9만9천명까지 감소하면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의 비중도 2001년 15.4%에서 10.9%까지 낮아졌다.

지난 1996년 전체 18%(17만9천명)에 달했던 30세 미만 취업자가 10년새 8만명이나 급감하면서 10% 수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실제 전남은 1996년 전체 취업자가 101만8천명에 달했으나 올해 92만5천명으로 10년새 9%(9만3천명) 감소했다.



광주·전남통계청 백남주 청장은 "일터에서 젊은층 노동자가 사라지는 생산현장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저하, 기술이전 단절 등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며 "특히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이 건설현장의 단순 노무직이나 주차 및 주유원 등 임시·일용직이 대분인 만큼 노동시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수영복 싸게 사세요

광주신세계는 본격적인 바캉스철을 맞아 '수영복 초특가전'을 열고 쓰리피스 비치 수영복을 6만9천원(아레나)과 5만9천500원(엘르)에 파는 등 신상품을 2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전남 벤처기업 지속 증가

올 상반기 463개사 집계 전국의 4% 수준에 불과

광주·전남지역의 벤처기업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지역내 벤처기업은 79개 증가, 463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전국 1만1천543개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벤처기업은 2001년 269개, 2002년 186개, 2003년 190개, 2004년 286개, 2005년 384개에서 2006년 상반기 463개에 이르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순증한 79개와 유효기간 2년이 지난 뒤 재확인을 거친 100개 벤처기업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제조업 75개,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10개, 연구개발서비스 6개, 건설·운수 5개, 도·소매 3개 등으로 제조업 비중이 가장 컸다.

업력별로는 1년 미만 14개, 5년 미만 44개, 10년 미만 29개, 10년 이상 13개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벤처기업화가 활성화되고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져 벤처기업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전국적인 통계와는 크게 부족해 일반 제조업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벤처수가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하남산단 입주업체 휴가 늘고 상여금 줄어

광주 하남산업단지내 입주업체들의 올 휴가일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반면 상여금 지급계획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하남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따르면 50인 이상 입주업체 70개사 가운데 휴무기간은 지난해에 비해 6일 8개→17개, 5일 27개→25개, 4일 18개→11일개로 조사됐다. 일주일 이상은 17개로 지난해와 같았다.

상여금 지급계획은 50% 미만 4개→1개, 50~100% 35개→33개, 현금지급계획은 10개→11개로 집계됐다. 미지급 업체도 21개에서 25개로 크게 늘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보해 '잎새주' 잘 나가네~

광주·전남 시장 점유율 83% 전국 점유율도 6.15% 상승세

올 하반기 소주시장의 판도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해 '잎새주'의 홈그라운드 시장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주류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보해는 광주·전남지역에서 82.9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20.1도 '잎새주' 출시 이전인 2월만 해도 76.67%였다가 5월 80.92%로 80%를 넘겼다. '잎새주'의 전국 시장점유율도 지난 2005년 5.86%에서 6.15%로 상승했다.

반면 이 지역에서 2월 22.68%의 점유율을 보였던 진로 '참이슬'은 5월 18.54%로 떨어지다 6월에는 16.27%까지 줄었다. 진로의 전국 시장점유율 역시 2005년 54.11%에서 올 상반기에는 52.33%로 급감했다.

보해 관계자는 "20.1도 '잎새주' 출시와 함께 지역밀착 마케팅을 강화해 올 하반기 시장점유율을 85%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